

1인가구 42%... 성동구, 촘촘 복지안전망으로 '고독사 예방'

내달 50~64세 1인가구 전수조사 고독사 위험군 분류 대응방안 모색 중위험군엔 스마트플러그 등 지원 하반기 복지사각지대 발굴교육 실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모습. /서울 성동구

서울 성동구가 복지안전망을 두텁게 짜 고독사를 예방하기로 했다. 관내 1인가구 비율이 전체의 절반에 가깝게 많아 집에 따라 사회적 고립상태에 있던 독거 가구가 고독사하는 비극을 방지하고자 선제 대응키로 한 것이다.

18일 서울 성동구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관내 전체 13만5884가구 가운데 5만7564가구가 1인가구다. 전체 세대수의 42.4%가 나홀로 가구인 셈이다.

'성동구 무연고 사망자 현황 자료'에 의하면 구에서는 2018년에는 15명(남 14명·여 1명), 2019년에는 14명(남 11

명·여 3명), 2020년에는 21명(남 19명·여 2명), 올해 상반기에는 5명(남 4명·여 1명)이 고독사로 세상을 떠났다.

구는 사회적 고립상태에 있던 1인가구가 자살이나 병사 등으로 홀로 임종

을 맞고, 뒤늦게 발견되는 일이 없도록 ▲상시적 발굴체계 마련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및 자원 연계 ▲고독사 예방교육·홍보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먼저 구는 고독사 위기가구 발굴 및 관리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구에 주민등록이 된 만 50~64세 1인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고독사 위험군을 분류,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구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인력, 복지플래너와 함께 중장년 독거 가구의 경제활동 여부, 공적급여 수급 여부, 결혼 상태, 1인 가구 형성 사유, 취약 주거 형태 여부 등을 조사·상담하고, 고독사 위험도별로 나홀로 가구를 나눈 다음 긴급복지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독사 고위험군에 구는 지역사회보

장협의체 1:1 친구맺기,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상담, 함께해요 안부확인 서비스를 지원한다. 일대일 친구맺기는 동협의체 위원이 고위험 1인 가구의 벗이 돼 말동무를 해줌으로써 고독사를 막는 활동으로, 17개동 주민센터가 추진한다. 안부확인 서비스는 만 40세 이상 1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일정 기간 휴대폰의 전화 수·발신 기록이 없으면 동네 주무관에게 문자가 전달돼 안부를 확인토록 하는 것이다.

중위험군에는 스마트플러그를 지원하거나 성동형 위기가구 ZERO(제로) 긴급지원반을 투입해 돕는다. 전기 사용량을 모니터링해 고독사를 관리하는 스마트 플러그는 관내 250가구에 공급된다. 성동형 위기가구 제로 긴급지원반은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했다

고급 급여를 지급한다.

고독사 저위험군은 지인프로젝트, 주민관계망 형성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지인프로젝트는 나홀로 가구의 사회성 형성을 위한 권역별 특성화 프로그램이다. 옥수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1인 생활백서 제작과 사회환원 활동을, 성수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건강·목공 동아리 활동을, 성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요리·공예 프로그램과 밑반찬 만들기 같은 공동체 활동을 진행한다.

구는 올 하반기 통·반장과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구는 인적자원망 구성원의 역할, 위기가구의 정의, 고독사 의심징후, 지역사회 개입방법,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 신고·제보 절차 등을 주민들에게 알리겠다는 목표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밤 10시 이후 서울 지하철 이용객 40% '뚝' 서울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서울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일환 대중교통 야간 감축운행 시행 성과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중교통 야간 감축운행을 시행한 결과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이용객수가 모두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권고에 따라 이달 초부터 심야에 대중교통의 20%를 감축 운영해왔다.

서울 지하철은 지난 9일부터 오후 10시 이후 전체의 20.7% 수준인 33회를 감회 운행했다. 시는 5·7호선은 경기·인천 연장구간 열차 운행계획 조정 관계로 이달 12일부터 감축 운영했으며, 1호

선은 경기·인천 등 시외구간의 운행시각 확보를 위해 감축운행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야간 감축 시행 후 밤 10시 서울 지하철 이용객은 20만4000명에서 12만2000명으로 40.2% 쪼그라들었고, 오후 11시 이용객은 3만7000명에서 2만2000명으로 41.5%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22시 혼잡도는 71.0%에서 54.4%로 16.6%포인트, 23시 혼잡도는 36.2%에서 29.2%로 7.0%포인트 감소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서울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모두 7월 8일부터 밤 10시 이후 20% 운행 감축이 시행됐다. 시는 시내버스 325개 노

선을 대상으로 1일 운행횟수 2470회 중 1975회를 운영해 약 495회를 감축 운행 중이다. 종전 대비 22시 이후 승객수는 19.2%, 23시 이후 승객수는 25.4% 줄었다고 시는 분석했다.

마을버스의 경우 249개 노선을 대상으로 1일 운행횟수 2만8287회 가운데 2만7797회를 운영해 약 490회를 감축 운행하고 있다. 야간감축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 오후 10시 이후 승객수는 26.3%, 밤 11시 이후 승객수는 32.9% 감소했다고 시는 전했다. 차내 혼잡률은 시내버스는 2.9%포인트, 마을버스는 2.6%포인트 준 것으로 파악됐다.

/김현정 기자

9월말까지 신고시 과태료 면제

서울시는 이달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자진신고기간내에 신규로 동물등록을 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 중 바뀐 사항을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된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이미 등록된 경우에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가 바뀌었으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고 시는 덧붙였다.

동물등록 신청과 변경 신고는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외의 변경 사항(주소·전화번호 등)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홍보 포스터. /서울시

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단,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없고, 동물등록증을 지참해 구청이나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체내에 삽입(주사)하는 내장형 방식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시민은 1만원만 부담하면 내장형 방식으로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립과학관, 무더위 타파 '극지체험전'

내일부터 메이커스튜디오서 무료관람

체감온도가 35도를 넘나드는 찜통더위가 이어지는 요즘, 무더위를 잊게 만드는 '극지체험전'이 열린다.

서울시립과학관은 '북극곰과 남극 펭귄의 지구사랑'을 주제로 극지 생활을 체험해볼 수 있는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시는 7월 20일부터 8월 29일까지 매주 화요일~일요일(오전 9시 30분~오후 5시 30분)에 서울시립과학관 메이커스튜디오에서 진행되며, 관람료는 무료다.

과학관은 생동감 넘치는 현장감을 관람객들에게 전달하고자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전시장 내 '극지 종합상



극지체험전 전시장 입구에서 북극곰이 관람객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서울시립과학관

활실'에서 남극장보고과학기지와 세종과학기시대원들과 화상 대화를 하며 생생한 극지 생활기를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한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교육청, 운동부 보호자 진로연수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9일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 보호자·학부모 대상 온라인 '진로지도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교육청은 연수를 통해 보호자들이 대학입시 체육특기자 특별전형과 입학사정관제 등 최근 변화된 상급학교 입학전형 이해를 돕고, 자기주도적으로 진로계획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학생선수 출신 대학입시 후기, 서울 학교운동부 운영 매뉴얼도 안내할 예정이다.

연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19일 오전 10시 교육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hj@

오늘의 날씨

7월 19일 (월) 음력: 6월 10일

수도권 날씨 25~33°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23/32, 동두천 23/32, 가평 22/31, 파주 23/31, 서울 25/33, 양평 23/31, 인천 25/30, 수원 25/32, 용인 25/32, 평택 23/32, 백령도 22/27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미국 코로나 신규감염 3개월 만에 최고... 마스크 의무화 확대 /사진 뉴스스
▲ 브라질 코로나19 하루사망자 868명... 신규 확진자 3만4000명대

▲ 이탈리아 성장률 올해 5.1% 2022년 4.4% 전망... "코로나서 회복"
▲ 중국 진출 韓 기업 "원자재 조달 고충... 3분기 제조업 경기 어려울 듯"



▲ 日, 유네스코에 강제징용 군함도 전시시설명 '적절했다' 반론키로 /사진 뉴스스
▲ 중국 외교부, 홍콩사업 경고·제재 미국에 보복 경고